



# 강화도 유적지 답사 협회 발전 마음 담아 한걸음, 한걸음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선사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유적지가 보존된 곳이다. 선사시대의 고인돌과 단군왕검께서 하늘에 제를 올리던 참성단을 비롯하여 고려 시대에는 대몽항쟁 39년간의 도읍지로서 팔만대장경판각, 고려청자, 금속활자 주조 등 민속 문화의 황금기를 꽃 피워 온 산실이며, 조선 말기에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체결 등 외세 열강의 침입에 의연히 맞서 싸웠던 국난극복의 현장이기도 하며, 방위를 위한 5진7보53 돈대(墩臺)가 강화도 해안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첫째 날, 초지진에서 출정식을 하고 해안도로 따라 걷다**  
역사적 유래를 담은 강화도의 여러 유적지를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3일간 도보로 답사하였다. 아침부터 2박 3일의 여정을 응원하는 듯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답사 출발지인 초지진에서 출정식을 했다. 강화해협과 한강을 거쳐 서울로 통하는 첫 관

문으로 강화 초지대교 바로 옆에 있는 초지진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일본 군함 운양호 침공 등 근세 외침에 즐기치게 싸운 격전지로 포탄을 맞은 흔적이 노송에 아직도 남아있다.

간단한 출정식을 마치고 강화 외성인 해안도로를 따라 독길을 걸어 덕진진을 지키던 외성의 요충지인 광성보에 가는 도중 광성보 옆 손돌목의 유래를 알고나니 한껏 애처로운 분

위기가 느껴졌다. 전설 속의 손들목을 뒤로하고 용진진을 지나 말없이 그때 그 자리를 지킨 갑곶돈대의 대포를 구경하고 강화읍으로 들어섰다. 고려 시대 이후의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있는 읍내에 반갑게도 첫날의 목적지인 외포리 선착장이 18km 남았다는 이정표를 보고나니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는 듯했다. 배가 고됐지만 1900년에 지어졌다는 성공회 강화성당을 볼 욕심으로 아픈 다리를 재촉했다.

강화성당의 유리창을 통해 고대 로마의 바실리카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는 본당 안을 들여다보니 초 칠이라도 한 듯 반들반들한 마룻바닥과 그 위에 놓인 작은 의자들은 초등학교 교실을 연상케 했다. 성당을 보고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자 중앙시장의 해병대 할머니 국밥집을 수소문하여 발길을 향하였다. 해병대 이병은 무조건 공짜, 군복 입은 모든 군인은 반값으로 국밥을 제공한다는 마음까지 배부른 공간에서 단아한 모습의 최순옥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밥보다 고기가 많은 국밥을 먹고 외포리로 향하였다.

찾길이 너무 좁아 오가는 차들 속에서 고인돌군락지를 지나 황금 들녘, 길가의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름 모를 들길, 반갑게 손짓해주는 촌부의 인상에서 넉넉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어둑어둑한 하늘의 별빛을 벗삼아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1. 분오리돈대 위 담사대원(사진 우로부터 남사중 사무총장, 김병길·최태군·이정덕 부장)
2. 외포리 선착장의 아침
3. 응원부대와 함께 황산도 가는 길



### 둘째 날, 우리를 알아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외포리 선착장에서 둘째 날 여정을 시작하였다. 해무에 끼인 외포리 선착장은 외국 어느 항구에 온 것 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전 목표지인 마니산을 향해 걷는 도중 해안가 갯벌 가까이 다가가니 송어 낚시하는 낚시꾼의 팔뚝만 한 자연산 송어를 잡는 외침이 들려온다.

후포 선착장을 지나 장화리 갯벌체험마을 고갯길을 올라 가는데 강화도를 순환하는 빨간 버스에서 경적이 울린다. 오늘 벌써 두 번째다. 버스 기사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경적을 울려주며 응원해준다. 이렇게 표식지를 배낭에 꽂고 강화도를 걸어가니 벌써 유명인사가 되었나 보다. 경적소리에 화답하듯 발걸음도 가볍다.

석모도가 잘 보이는 해변가 자갈밭과 갯벌이 있는 길로 가는 길에 장곶돈대, 북일곶돈대, 강화갯벌체험센터 등 곳곳의 역사의 현장을 지나 둘째 날의 종착지인 동막해수욕장에 이르렀다.

간조 때가 되면 끝도 없이 펼쳐진 갯벌을 바라보며 마니산 서쪽 등반지점인 강화도 유일의 해수욕장인 그곳에서 밤하늘에 퍼지는 폭죽을 감상하며 아름답고 아쉬운 이튿날 여정이 저물어갔다.

### 셋째 날, 삼일의 도보 성취한 결과의 기쁨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낙조 조망지로 유명한 분오리 돈대에 올라보았다. 삼면이 확 트인 돈대에서 해병의 힘찬 아침인사를 듣고 우리의 일정을 알려줬더니 군대에 다시 입대하라는 농담 섞인 격려를 듣고 겨울 철새 도래지인 동검도에서 기다리는 응원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다. 길가에 늘어선 수백 채의 팬션 때문에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뒤로하며 난개발의 현상이 여기에도 존재함을 느끼는 찰나, 저 멀리 기다리는 응원부대와 함께 마지막 코스인 황산도를 향해 걸기로 하였다.

고마운 동료들의 응원에 그간의 피로가 싹 풀어지는 듯 하였다. 모두가 2박 3일 90km 도보여행이 무리라고 했지만 성취한 결과는 기쁨을 넘어 자신감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MEDI**CHECK